

식물명 연구의 현황과 과제

황선엽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국어사 전공
hsy@snu.ac.kr

I. 머리말

II. 식물명의 개념

III. 식물명 연구사

IV. 식물명의 특성

V. 식물명 연구의 유의점과 과제

I. 머리말

이 글은 식물명에 관한 여러 분야의 연구 현황을 정리하고 식물명의 특성과 식물명 연구 시 유의할 점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필자의 전공상 논의는 언어학적 관점이 중심을 이루고 연구의 방향도 역사적인 분야에 치우쳐 있음에 대해서는 독자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이 글은 <조선시대 물명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 이 학술회의의 목적이 '조선시대의 물명(物名)과 관련한 그동안의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연구 방향 및 과제를 파악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글의 논의가 그러한 목적에서 다소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는 측면도 있지만 '식물명'을 다룰 때 '조선시대의 물명'에만 국한하여 논의하기는 어려우므로 식물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 학술회의에서는 향약명과 음식명에 대해서도 별도의 발표가 이루어진바 식물명 중 그 분야와 중복될 수 있는 논의는 가능한 한 생략하였음도 밝혀두는 바이다.

논의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식물명'이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살펴본 후 식물명을 둘러싼 그동안의 연구들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이후 식물명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특성을 알아보고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식물명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과 유의할 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II. 식물명의 개념

'식물명'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논의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식물명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식물명이란 말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식물명을 '식물+명'의 개념으로 사용한 것과 '식물+물명'의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가 생물학(식물학) 쪽의 개념이라면 후자는 언어학(국어학) 쪽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생물학 관련 논문들에서 식물명이란 식물분류학상 한 종(種)의 이름들

을 칭하는 것이다. 즉, 식물명이 식물의 이름이란 뜻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식물+명’과 같이 이해한 것이다. 이에 비해 국어학 논문들에서 식물명은 생물학에서와 같이 종(種) 이름의 의미를 넘어 식물이나 식물의 열매, 꽃 등의 부분 명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는바 이는 식물명을 ‘식물+물명’의 의미로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뽕나무-오디, 뱃나무-버찌’와 같은 예에서 ‘식물+명’의 개념으로 식물명을 사용할 경우 식물명에 해당 되는 것은 ‘뽕나무, 뱃나무’만이다. 그러나 식물명을 ‘식물+물명’의 개념으로 사용한다면 ‘뽕나무, 오디, 뱃나무, 버찌’ 등이 모두 식물명에 포함된다 고 파악할 수 있다.

쉬운 이해를 위해 나무 이름과 열매 이름이 다른 예를 들었지만 나무 이름과 열매 이름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동일하다. 즉 ‘사과’라고 할 때 이것이 식물의 한 종을 뜻하는 명칭일 수도 있고 과일로서의 ‘사과’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식 명칭이기는 하겠으나 식물학 논저에서 ‘사과’만으로 ‘사과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진달래’ 역시 진달래라는 식물의 종명으로 꽃, 잎, 줄기, 뿌리 전체를 칭하는 것일 수도 있는 반면 꽃 부분만의 명칭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진달래꽃’이 보다 정확한 명칭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진달래꽃’을 식물의 종명으로 이해하여 꽃, 잎, 줄기, 뿌리 전체를 칭하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 언어 현실이다. 식물명을 ‘식물+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학술적인 규정에 기반한 개념이라면 ‘식물+물명’으로 이해하는 것은 일반적인 언어 사용 양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국어학 논문들에서 식물명을 ‘식물+물명’의 개념으로 사용한 것은 엄밀한 학술적 개념 정의 없이 일반적인 단어로 사용한 것이라 하겠다.

식물명을 ‘식물+물명’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다시 두 가지를 구분해볼 수 있다. ‘식물+물명’의 의미를 ‘식물 그 자체의 명칭’으로 파악하는 경우와 보다 의미를 넓혀 ‘식물과 관련한 모든 명칭’으로 파악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뽕나무, 오디, 뱃나무, 버찌, 사과나무,

1) 물론 국어학 쪽의 논의에서도 현대국어의 식물명을 대상으로 한 조어(造語)나 구성방식 등에 대한 논의들은 생물학과 같은 엄밀한 개념으로서 ‘식물명’을 사용한 경우가 있으나 여기서는 두 분야의 일반적인 경향성에 대해 말한 것이다.

사과, 진달래, 진달래꽃' 등이 포함되고 후자의 경우는 이들 단어는 물론 '뿌리, 줄기, 잎, 가지, 꽃, 열매, 꼬투리, 깍지' 등과 같은 식물의 부분을 지칭하는 명칭이나 '나물, 가시랭이, 지푸라기, 싸라기' 등과 같이 식물과 관련한 명칭 모두가 포함된다. 전자가 앞서 논의한 현재의 일반적인 언어 사용 양상을 고려한 개념이라면 후자는 조선시대 물명류 문헌에서 인식하고 있는 개념이다.²⁾ 일례로 유희의 『물명고』에는 (1)과 같은 예들을 식물명에서 다루고 있다.

(1) 莖[草莖 줄기], 蔓[草莖蔓延 너출], 葉[잎], 華[꽃], 實[열매], 菜[草可食 나물], 穗[禾黍之穗 곡식이삭], 莢[草實之殼 고토리], 芒[穀鬚 가스르기], 藁[穀莖 집], 枇[穀不成粒 죽정이], 穢[기음], 粃[碎米 쌀아기]

이는 조선시대의 물명류 문헌들이 자서(字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당 분류 항목과 관련되는 한자들을 가능한 한 폭넓게 수록하고 풀이를 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희의 『물명고』에서는 다음의 (2)와 같은 예들도 식물명에서 다루고 있다.

(2) 茹[食菜 나물먹다], 薙[풀썬다], 蕪[種也 시무대], 耘[除穢 기음미다], 結角兒[고토리밧다]

현대적 의미에서 물명이란 명사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조선시대의 물명류 문헌에서는 (2)와 같은 용어들도 물명에서 포괄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다.³⁾ 하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2)와 같은 유형까지를 식물명에서 다루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1)의 경우에는 식물명에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을 듯하다. 이 글에서는 현재의 일반적인 언어 사용 관습에 따라 (1)의 유형도 배제하고 '뽕나무, 오디, 뱃나무, 버찌, 사과나무, 사과, 진달래, 진달래꽃' 등과 같이 식물을 지칭하는 명칭만 식물명에 넣어 다루었다.⁴⁾

2) 물론 조선시대에 '植物名'이란 단어가 쓰이지는 않았으나 '草(卉), 木, 穀, 菜' 등에 대한 물명을 식물명으로 파악하였다.

3) 이번 학술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듯이 홍윤표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물명'은 현대국어의 '어휘'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4) '식물명'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물명류 서적'에 초점을 두면 (2)와 같은 예들도 다루는

Ⅲ. 식물명 연구사

식물명에 대한 연구는 국어학이나 국어교육학 분야 등에서 언어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과 생물학(식물학)·생물교육학·원예학·임학·농학·한의학 등 주로 자연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국어학과 국어교육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정 식물명을 다루거나 언급하고 있는 논저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형편이어서 논저의 일부에서 특정 식물명의 어원을 다루거나 어휘론적 연구를 행하며 부분적으로 식물명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향약명에 대한 연구는 별도의 발표에서 다루어지므로 향약명에 대한 연구들도 가능한 한 제외하고 정리하였다.

- 현대 국어 식물명의 구성방식 및 특징, 의미 등에 대한 연구: 노재민(1999), 서은정(1992), 양인내(2008), 여찬영(1991, 1997), 오금희(2011), 우단이(2010), 임소영(1997, 1999)
- 역사적 연구
 - 특정 부류(곡식, 나무, 채소, 꽃, 향약, 방언 등)에 대한 연구: 김현(2010), 대천대보(2003), 손병태(1996), 손혜선(1995), 신중진(2012, 2013, 2014), 여찬영(2001, 2002), 이광호(2010, 2013), 이기문(1975), 이송녕(1966), 장충덕(2005, 2008, 2009), 현평효(1969)
 - 개별어휘에 대한 연구: 강현규(1999, 2007, 2008), 김영만·김정명(2011), 김완진(2002a, b), 김원표(1948, 1949), 민경탁(2000), 심재기(1999), 이기문(1998), 이길재(2005), 이병근(1996, 1997, 1998), 이태영(2000), 장충덕(2007a, b), 조항범(2014), 천정아(2012), 홍윤표(2005, 2006), 황선엽(2001, 2008, 2009a, b, 2010a, b), 栗田英二(1999)

언어적 관점에서 식물명을 다룬 연구는 우선 현대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현대국어의 식물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식물명의 구성방식 및 특징, 나아가 그 의미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즉, 조어법적 관점에서 식물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인바 식물명의 구성방식, 접두사 등을 주로 연구하였다. 역사적 관점의 연구는 특정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식물명'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기술되었기에 이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밝혀둔다.

문헌에 나타나는 식물명이나 나무, 채소, 꽃, 향약, 특정 방언 등을 대상으로 일부 부류에 대한 식물명 등을 연구한 것과 개별 식물명의 어휘사나 어원 등을 연구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식물명을 다룬 자연과학 분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물학(식물학)·생물교육학·원예학·임학·농학·한의학 등으로 다양한데 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볼 수 있다.

- 식물에 대한 분류, 식물명 사용의 문제, 식물명 인지도에 대한 연구
 - 교과서나 학교를 중심으로 한 것: 김상경(1997), 김상경·성정숙·문성기(1998), 김현주(2005), 류면옥(1998), 서석조(1982), 서석조·성민웅(1982), 신숙자(2008), 윤희섭(2000), 이정애(1958), 임영득·윤희섭(2000), 임병운(2007), 정하나(2010), 천민필(2014), 최병기(1995), 한정주(2001), 황인현(2010)
 - 유통이나 시장에 관한 것: 박소영(2008), 안영희·박소영·방식·강귀옥(2007), 정순혜(2002)
- 특정 지역의 식물에 대한 연구: 김한주(2001, 2004), 신연희 외(2013), 정규영 외(2010, 2011), 정혜란·최경·문현식(2012)
- 현대적 관점에서 식물명의 유래나 어원, 언어적 문제를 다룬 연구
 - 학명, 속명 등 명칭에 대한 것: 김정국(1976), 박시화(2010), 박윤점 외(2001, 2005a, b), 박인환(1994), 백진주 외(1998), 서병기(2008), 이기의·황중락·윤영환(1991), 이송인(2012), 이우철(1996, 2005), 이일병(2001), 이일병 외(2003), 장권렬(1974), 장진성·김휘(2003), 정익중(1983), 주정석(2012), 최상범(1988, 1994), 한태호, 허복구 외(2002), 허복구 외(2004a)
 - 기타: 강병화·심상인(1997), 김현진 외(2013), 서정남·김종윤·박천호(2005), 이우철(1992), 이주희 외(2011), 정영호(1986), 허복구 외(2004b, 2008)
- 문헌 자료의 검토를 통한 역사적 고찰: 김미옥(2009), 김종덕(1999, 2007, 2011a, b), 김종덕·고병희(1998, 1999a, b, 2001), 정경란(2014), 정경란·장대자·양혜정·권대영(2009a, b),

우선 교과서 등에서 다룬 식물, 교정(校庭)이나 주변의 식물들에 대한 식물학적 분류와 그 식물들에 대한 인지도 문제를 연구한 논문들이 다수 있다. 주로 생물교육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교육대학원 논문이 대부분이고 특정 대학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는 교육대학원 논문들이 보이는 유사한 주제의 중첩 연구에 기인한다. 이 연구들은 식물명 자체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식물명에 대한 인식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식물명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연구는 해당 식물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를

다른 것이지만 교사들의 인지도에 대한 연구도 있다. 이는 식물에 대한 인지가 그만큼 어려운 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유통되는 식물명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이 역시 범위가 학교를 벗어났을 뿐 연구의 성격은 교과서의 식물을 다룬 것과 비슷하다. 이들 연구는 식물명 연구가 순수 학문적인 목적 외에 교육적으로나 시장 경제적으로도 유용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특정 지역의 식물을 다루며 그 지역의 방언형들에 대해 조사하거나 언급한 연구들이 있다. 약용이나 식용으로 쓰이는 식물만 대상으로 산발적으로 연구된 것이어서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이기는 하나 방언형들에 대한 연구에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바 해당 학회나 연구자를 중심으로 지역의 안배나 조사할 식물명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면 더 좋을 듯하다.

현대적 관점에서 식물명의 유래나 학명의 어원, 언어적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이기의·황중락·윤영활(1991)은 조경 식물명의 유래를 다루었는데 주로 서구에서 유입된 최근의 식물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약용식물의 종명과 속명의 어원을 연구한 이승인(2012), 주정석(2012)은 학명을 중심으로 어원을 논의한 것이다. 장진성·김휘(2003)은 수목의 학명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들은 모두 식물명을 주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학명이나 외래어로 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이어서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식물명과는 거리가 있다. 이외에 원예학 용어 및 작물명에 대해 해당 분야의 책들과 『표준국어대사전』 간에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연구한 서정남·김중윤·박천호(2005), 남북한의 식물명을 비교한 강병화·심상인(1997), 이우철(1992) 등과 같이 식물명의 언어적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문헌 자료의 검토를 통한 역사적 고찰을 행한 연구들이 있다. 이는 자연과학 쪽에서 이루어진 연구이기는 하되 이 글에서 관심을 가지는 식물명 연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종덕·고병희(1999a)는 ‘아욱(葵菜), 점시꽃(蜀葵), 닥풀(黃蜀葵), 해바라기(向日葵)’와 같이 한자어 이름에 공통적으로 ‘葵’가 들어가 서로 혼동되기 쉬운 식물에 대해 각 식물의 국내 유입 시기를 고려하여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고찰한 것이며, 김종덕·고병희(2001)는 해바라기의 어원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다. 이들 연구는 한의학 쪽의 연구이지만 언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그 내용은 이병근(1997)에서 상당히 다루어진 것이며 어느 정도 상식화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정경란·장대자·양혜정·권대영(2009a)과 정경란·장대자·양혜정·권대영(2009b)은 ‘고추’의 어원을 다룬 것으로 정경란·장대자·양혜정·권대영(2008a)과 정경란·장대자·양혜정·권대영(2008b)에서 제기된 고추가 임진왜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주장에 이어 쓰인 것이다. 이기문(1998)에서 제기된 ‘고추’의 어원과 변천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황선엽(2010a)에서 논의하였듯이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자연 과학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헌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한 식물명의 역사적 연구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IV. 식물명의 특성

우리가 어떤 단어를 안다고 할 때 안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그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한다. 가령 ‘물매’라는 단어를 안다면 그것이 ‘수평을 기준으로 한 경사도’를 말하는 것이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지붕의 물매가 싸다”와 같은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어나 추상어와 달리 식물명과 같은 물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령 ‘뽕나무’라는 단어를 안다고 할 때 ‘뽕나무’와 ‘낙엽 활엽 교목. 열매는 ‘오디’라고 하여 식용하며 잎은 누에의 사료로 쓴다’와 같은 의미를 아는 것과 뽕나무라고 하는 식물을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의미 삼각형에서 음성형식(단어)이 나타내는 지시물(대상)과 의미가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이 둘을 아는 것이 각기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구체 명사에서 발생하는 것이나 ‘책상, 연필’ 등과 같은 일반 명사에서는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 식물명(특히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식물일 경우 더욱더)이나 새 이름, 물고기 이름, 곤충 이름 같은 동물명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는 상당수의 식물명을 알고 있으나 그것이 지시하는 실제의 식물을 보고 그 이름을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된다. 꽃이나 열매가 없는 상태,

더 나아가 겨울에 잎마져 떨어진 경우에는 평소에 잘 아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오인하거나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앞서 식물명에 대한 생물교육학 쪽 연구의 다수가 식물명과 식물을 연결시키는 인지 문제를 다룬 것도 이러한 식물명의 특성에 기인한다.

식물명의 또 다른 특성으로 공시적인 변이형, 즉 방언형이 매우 다양하고 통시적인 변천도 무척 심한 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식물의 이름을 붙이는 유형을 보면 꽃, 열매, 잎 등의 외형적인 모양이나 특징에 따라, 식용이나 약용하는 용도에 따라, 잎이나 꽃이 피어나는 계절에 따라, 유사한 식물의 명칭에 따라,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 등등 다양한바 지역에 따라 한 종류의 식물에 부여된 명칭이 단순한 음운적인 변이를 넘어 전혀 다른 형태로 된 경우가 많다. 일례로 ‘강아지풀’의 공시적인 변이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⁵⁾

(3) 가아지풀/가지풀, 간지풀, 개지풀, 강새이풀; 복슬가아지(풀); 오요가지, 올롱가지, 오요강새이, 오로강새이; 벼들가아지(풀), 벼들가지; 가라지; 쾌래지; 개갈가지; 개꼬리풀; 마아지풀

통시적인 변이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형으로 교체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한다. 몇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4) ㄱ. 부루 → 상추(<싱취(生菜))
- ㄴ. ㄹ라지(<ㄹ랏) → 강아지풀; 개둥나모 → 가죽나무; 양고미(<罌菘米) → 양귀비(楊貴妃)
- ㄷ. 고쵸(<胡椒) → 후추/고추
- ㄹ. 木槿花 → 무궁화(無窮花)/목근화(木槿花)

(4ㄱ)은 고유어 ‘부루’가 근대 국어 시기에 한자어 ‘生菜’로 교체된 예인데 음운의 변화를 입어 ‘상추’가 되었다. (4ㄴ)은 음운 변화와 그에 따른 음성적인 유사에 따라 다른 어형을 가지게 된 경우이다. ‘ㄹ라지’가 ‘·’의 비음운화로 ‘가라지’가 된 후 음성적 유사형인 ‘강아지’로 교체되어 ‘강아지풀’(물론 이 변화에는 강아지풀의 외형적인 모습과 중국어 ‘狗尾草’ 등도 영향을 주었다)이 되었다. ‘개둥나모’는 구개음화(개중나모)와 반모음

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황선엽(2009b)를 참조할 수 있다.

‘1’의 탈락(가중나모), 단모음화 및 음성모음화(가중나무), ‘가중’이란 낯선 형태소를 친숙한 형태인 ‘가죽’으로 교체(‘참죽나무’와의 유추도 관련 됨) 등의 변화를 겪었다. 병 속에 든 고미(菰米: 줄풀의 씨)를 의미하는 ‘양고미’가⁶⁾ ‘양고미 > 양구비 > 양귀비’와 같은 변화를 겪어 유명한 인물 ‘楊貴妃’와 음성적으로 같아짐에 따라(또는 음성적으로 유사한 ‘양고미’가 ‘楊貴妃’에 유추되어 변화했을 수도 있음) 현대어에서는 식물 이름 자체를 양귀비(楊貴妃)로 인식하게 된 예이다.

(4ㄷ)은 ‘후추’를 의미하던 ‘고초’가⁷⁾ 고추가 전래된 후 고추에 그 이름을 넘겨주고 ‘후추’로 변화하게 된 예이다. 적도 인근에서만 재배되므로 매우 귀한 수입 약재였던 ‘고초(후추)’를 대신해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가능한 까닭에 매우 향신료로 널리 사용하게 된 고추가 그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가령 남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자라나는 동백나무가 강원도에는 없는 까닭에 동백나무와 같이 머릿기름으로 사용되는 용도를 지닌 생강나무를 동백나무로 부르게 된 것과 같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⁸⁾ 즉, 용도가 같은 식물에 대해 보기 어려운 식물명을 보다 흔한 식물에 붙인 경우이다. 단어의 어형 측면에서 보면 ‘고초’가 ‘고추’로 변화했을 뿐 단어가 다른 어형으로 교체된 것은 아니지만 지시 대상의 측면을 기준으로 보면 ‘고초’가 ‘후추’로 교체된 것이다.

(4ㄹ) 역시 한자어에서 유래한 두 형태라는 점에서 이와 유사하나 현대국어에서 ‘무궁화’와 ‘木槿花’가 모두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4ㄷ)과는 차이가 있다. 즉, ‘무궁화’가 ‘木槿花’의 중국음에서 유래한 단어이나 발음에 따라 ‘無窮花’란 별도의 표기를 가지게 됨에 따라 ‘木槿花’와 별도의 단어가 된 것이다. 『현대 국어사전』에는 무궁화와 목근화(木槿花)가 모두 등재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목근화’의 예를 제시한다.

6) 양귀비의 씨를 한방에서 ‘御米’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예전 음이 ‘고미’여서 ‘양고미’라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하다. 혹은 ‘菰米’에서 이름이 유래했으나 ‘菰米’와 구별하기 위해 음이 같은 다른 한자를 사용하여 ‘御米’로 표기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御米’가 韓中日 모두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서 일어난 후 다른 나라로 전파되었다고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듯하다.

7) ‘고초’는 중국어 ‘胡椒’에서 차용된 말로 이 단어가 수입될 당시 ‘胡’의 음이 ‘고’였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황선엽(2010a)를 참조할 수 있다.

8)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의 동백이 생강나무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5) 목근-화(木槿花)[근-]

「명사」

「1」『식물』= 무궁화「1」.

「2」= 무궁화「2」.

이와 비슷하게 같은 한자어(중국어)에서 차용되었으나 두 가지 어형으로 나타나는 예로 '무명'과 '목면(木綿)'이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무궁화'와는 다른 유형에 속한다. 두 단어의 뜻을 풀이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져와 보인다.

(6) ㄱ. 무명

「명사」

무명실로 짠 피륙. ≒면포02(綿布)·명01「1」·목면「4」·목면포(木綿布)·백목01(白木).

㉑ 무명 한 동/무명 두루마기/무명으로 바지를 지어 입다.

【<무면[면노]>[중]木棉·木綿】

ㄴ. 목면(木綿)[면-]

「명사」

「1」『식물』 목화나뭇과의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2」『식물』 여러해살이 목본(木本)의 목화.

「3」『식물』= 목화02(木花)「2」.

「4」= 무명01.

(6)에서 볼 수 있듯이 무명은 식물명으로는 쓰이지 않고 옷감의 의미만 지니고 있으나 목면은 옷감과 식물명으로 모두 사용된다.

V. 식물명 연구의 유의점과 과제

이 장에서는 식물명에 대한 어휘사 연구에서 유의할 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정리하기로 한다.

식물명에 대한 어휘사 기술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 식물의 학명과 생태를 살펴보아야 한다. 학명은 비록 우리말은 아닐지라도 해당 식물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또 하나의 이름일 뿐 아니라

그 식물의 외국어명(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을 비교해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식물의 생태를 아는 것 또한 그 식물의 명칭을 이해하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물명을 연구하는 목적과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기초로서 물명을 알려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적 의미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 자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벚꽃이 피어 있는 모습만으로 벚나무를 안다고 할 수 없으며 고사리를 나물의 상태로만 아는 것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식물의 뿌리·줄기·가지·잎·꽃·열매 등의 모습과 특징을 알고 성장과정의 변화, 봄·여름·가을·겨울의 상태, 식용이나 약용 등의 쓰임 등을 모두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식물학자들이 국어학자의 식물명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이 해당 식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임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해당 식물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해당 식물에 대한 역사적인 문헌 자료를 다양하게 참고해야 한다. 식물명에만 주목할 경우 자서류나 물명류 문헌에만 주목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한의서나 농서는 물론 여러 백과사전적 저술, 다양한 개인 문집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같은 역사서에 대해 살펴볼 필요도 있다.

식물명 연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원이다. 따라서 식물명의 유래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난무하고 민간어원이나 유치한 건강부회식 어원 풀이가 널리 통용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언어학적으로 구체적 어원을 밝혀낼 수 있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단어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최초 출현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대중의 기호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민간어원이 널리 유통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각종 서적에 수록되어 인터넷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민간어원적 식물명의 몇 예를 들어본다.

- (7) ㄱ. 민들레: 문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문들레’가 변한 말.
- ㄴ. 전나무: 가지가 옆으로 작은 가지와 잎을 내서 피져 납작하므로 음식의 전과 같은 모양이어서 붙은 이름.
- ㄷ. 쭈부쟁이: 쭈을 캐러 다니던 대장장이(부쟁이<불쟁이)의 딸인 쭈부쟁이가 죽어서 핀 꽃이라 하여 붙인 이름.

- ㄹ. 참죽나무(참중나무): 이 나무의 어린 순을 중(스님)들이 즐겨 먹는다는 뜻에서 ‘중나무’가 되었는데 ‘가죽나무’와 구별하기 위해 ‘참’을 붙였음.
- ㅁ. 오디: 색이 검다는 데서 ‘옷나무’의 ‘옷’에서 유래

(7ㄱ)의 민들레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최초출현형이 『동의보감』의 ‘므은드레’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문(門)’과 연결시키기 어렵다. (7ㄴ)의 전나무 역시 이전 어형은 ‘젓나무’이므로 ‘전’과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7ㄷ)과 같이 식물명을 설화와 연결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대표적인 민간어원의 예이다. 식물명으로부터 설화를 만들어내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쭈부쟁이의 ‘부쟁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소루쟁이의 방언형인 ‘솔부쟁이’, 질경이의 방언형인 ‘배부장이/배부쟁이/빠부쟁이/빠부쟁이/빠부쟁이/빠부쟁이’ 등에 보이는 ‘부쟁이/부장이’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7ㄹ)의 경우는 ‘참죽나무(참중나무)’의 차자표기인 ‘眞僧木’이 더욱 그러한 연상을 가능하게 하는데 김완진(2002b)에서 이미 밝혔듯이 ‘樁’의 음에서 차용된 ‘툇/툇 > 둥’이 구개음화와 단모음화를 거쳐 ‘중’이 된 것이다. (7ㅁ)의 ‘오디’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때 선대형이 ‘오디 < 오디’였음을 알 수 있는데 ‘옷’과는 발음의 차이가 있어 어원이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잘못된 식물명의 유래나 어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식물학자와 국어학자가 공동 작업을 통하여 식물명의 어원을 바르게 기술해서 향간에 널리 퍼진 잘못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식물명 연구에서는 방언형에 대한 고찰 역시 필수적이다. 그러나 다양한 식물명에 대한 전국적인 방언 조사 결과가 없어 현재로서는 해당 식물명의 방언 어휘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기술하는 방법밖에 없다. 필자는 여러 차례 식물명에 대한 전국적인 방언 조사가 필요함을 역설해왔으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식물명 조사를 위한 방언 연구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조사할 목록을 확정해야 한다. 현대의 식물도감과 조선시대의 물명류 서적 등을 참고하여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항목(식물도감 등에 실려 있는 식물명의 다수는 1920년대 이후 조어되어 부여된 경우가 많다)을 뽑아 식물명 방언 조사 질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식물명은 인지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당시 명칭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80년에 간행한 ‘한국방언조사 질문지’는 방언 조사의 편의를 위해 모두 516면의 질문지에 붙여 171면의 그림책을 같이 만들었는데 식물명의 경우에는 그림만으로도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매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가 동원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제작 비용의 문제가 크다 하겠다.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식물명을 표준화하여 통일된 식물목록을 만드는 작업을 2000년 6월부터 진행하여왔다. 현재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그 결과는 국가표준식물목록 사이트(http://www.nature.go.kr/newkfsweb/kfs/idx/SubIndex.do?orgId=kpni&mn=KFS_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표준식물목록이란 ‘혼란스럽게 통용되고 있는 식물의 이름을 표준화하고자 식물별 전문연구자가 최근의 분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식물명을 정리하고, 국립수목원과 한국분류학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가식물목록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심의하여 결정, 정리한 목록’이라 설명되어 있다. 현재는 다음과 같이 1만 4,437종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제공되고 있다.

(8) 국가표준식물목록 통계

테이블명	구분	전체 레코드 수
국가표준식물목록 식물종	자생식물	4,176종
	재배식물	9,940종
	귀화식물	321종
	등록된 전체 종	14,437종
학명테이블	학명	30,225건
국명테이블	국명	35,537건

등록된 식물 1만 4,437종에 대해 학명이 3만 225건으로 한 종당 평균 2.1개, 국명이 3만 5,537건으로 평균 2.5개가 실려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진달래’에 관한 목록 중 명칭 부분에 관한 것만 가져와 보기로 한다.

(9) 국가표준식물목록 중 진달래 항목

정명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이명	1. Rhododendron davuricum var. mucronulatum (Turcz.) Maxim. 2. 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acuminatum Hutchison 3. 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latifolium Nakai
국명	진달래 진달래나무 참꽃나무 진달래(추천명) 왕진달래
외국명	영문명 Korean Rhodo-dendron 일본명 ゲンカイツツジ

정명과 이명은 모두 학명에 대한 것으로 식물학계에서 통용되는 여러 학명 중 하나를 정명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이명으로 처리하여 제시해준 것이다. 국가표준식물목록이란 이름에서 받는 느낌으로는 국명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으나 식물학자들의 관점이 반영된 결과인지 학명이 중심이 되어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국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명칭을 제시한 후 그중 하나에 ‘추천명’이란 표시를 하여 표준목록(표준명)을 나타내었다. ‘표준명’이 아니라 ‘추천명’이라 하여 그 명칭의 규범성을 상당히 완화시켜 표현하였는데 이 역시 ‘국가표준식물목록’이란 표현에서 표준이 국명 쪽보다는 학명 쪽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진달래’의 경우는 추천명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 굳이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점도 문제이다.

이 작업이 국명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었음은 방언형을 포함한 다양한 국명을 수집하려는 노력이 적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한 종에 대한 국명이 평균 2.5개가 실려 있다는 것은 해당 식물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조사되어 수록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외국어명의 경우도 영어와 일본어만 제시되어 있고 중국어 명칭은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식물학들이 주로 참고한 문헌이 영어와 일본어로 된 것이었음에 기인한다. 또한 일본어명의 경우 가타카나로만 적어 놓아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점도 문제이다. ‘ゲンカイツツジ(玄海躑躅)’과 같이 한자를 병기해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

된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식물학자와 국어학자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식물명을 조사하고 정리할 때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갈 수 있고 폭넓으면서도 균형 잡힌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어학 및 국어교육학 등 언어학 분야

- 강현규, 「'참외'의 어원」. 『어원연구』 2, 한국어원학회, 1999, 27-32쪽.
- _____, 「결초보은(結草報恩)이란 말에 나온 풀[草] 이름의 고찰」. 『한어문교육』 18,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7, 5-17쪽.
- _____, 「보리수(菩提樹)의 어원」. 『한어문교육』 19,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8, 5-19쪽.
- 김영만·김정명, 「무궁화의 문헌 고찰」. 『문화예술콘텐츠』 7, 한국문화콘텐츠학회, 2011, 30-62쪽.
- 김완진, 「사과와 능금, 그리고 '뫓」. 『국어학』 40, 국어학회, 2002a, 3-19쪽.
- _____, 「사과참외와 참죽나무」. 『새국어생활』 12-2, 국립국어원, 2002b, 109-115쪽.
- 김원표, 「벼와 쌀의 어원에 관한 고찰」. 『한글』 13-2, 한글학회, 1948, 19-23쪽.
- _____, 「보리의 어원과 그 유래」. 『한글』 14-1, 한글학회, 1949, 31-34쪽.
- 김현, 「고흥지역의 갯벌 생물과 채취 관련 어휘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노재민, 「현대국어 식물명의 어휘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대천대보, 「'채소' 관련 어휘의 통시적 고찰」.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민경탁, 「오얏론」. 『새국어생활』 10-2, 국립국어원, 2000, 171-176쪽.
- 서은정, 「植物名에 대한 造語論의 考察: 派生法과 合成法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손병태, 「植物性 鄉藥名 語彙 研究」. 『한민족어문학』 30, 한민족어문학회, 1996, 105-191쪽.
- 손혜선, 「곡물명의 借字表記 고찰: 〈衿陽雜錄〉과 〈山林經濟〉를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신중진,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에 실린 〈稻벼〉 곡물명(穀物名)에 대한 어휘사적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2,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2, 83-118쪽.
- _____, 「곡물명 수록 어휘 자료집의 계보와 그 어휘 목록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4,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67-95쪽.
- _____,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에 실린 잡곡명(雜穀名)에 대한 어휘체계사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6,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4, 101-134쪽.
- 심재기, 「우리말 語源 5: 무궁화(無窮花)의 내력」. 『한글한자문화』 7,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1999, 31-34쪽.

- 양인내, 「동·식물명 접두과생어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여찬영, 「식물 명칭어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7,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1, 11-33쪽.
- _____, 「우리말 식물 명칭어의 짜입새 연구」. 『우리말글』 15, 우리말글학회, 1997, 105-131쪽.
- _____, 「나무 명칭어 한자 자석 연구: 떡갈나무류를 중심으로」. 『어문학』 74, 한국어문학회, 2001, 21-43쪽.
- _____, 「아가위나무류 한자 자석 연구」. 『어문학』 77, 한국어문학회, 2002, 25-46쪽.
- 오금희, 「한국어 꽃 이름의 형태·의미 분석」.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우단이, 「한·중 꽃 이름의 형태적·의미적 대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광호, 「곡식류 어휘장의 분류 및 표기법 연구」. 『어문학』 109, 한국어문학회, 2010, 99-121쪽.
- _____, 『농서 자료에 나타난 어휘장의 분류 및 표기법 연구』. 역락, 2013.
- 이기문, 「금양잡록의 곡명에 대하여」. 『동양학』 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75, 99-110쪽.
- _____,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1991.
- _____, 「후추와 고추」. 『새국어생활』 8-4, 국립국어원, 1998, 193-201쪽.
- 이길재, 「“등겨”의 방언형과 그 어원: 전라방언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29, 한국어학회, 2005, 187-209쪽.
- 이병근, 「‘질경이(車前草)’의 어휘사」. 『李基文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신구문화사, 1996[이병근(2004), 어휘사에 재수록].
- _____, 「해바라기(向日花)’의 語彙史」. 『관악어문연구』 2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61-73쪽[이병근(2004), 어휘사에 재수록].
- _____, 「마름’의 어휘사」. 『방언학과 국어학』, 태학사, 1998[이병근(2004), 어휘사에 재수록].
- _____, 『어휘사』. 태학사, 2004.
- 이승녕, 「詩歌에 나타난 植物名의 語彙論的 考察」. 『진단학보』 29·30합집, 진단학회, 1966, 509-518쪽.
- 이태영, 「‘늑뿔, 늑뿔새’의 어휘사 연구」. 『국어학』 36, 국어학회, 2000, 39-63쪽.
- 임소영, 『한국어 식물 이름의 연구』, 한국문화사, 1997.
- _____, 「꽃 이름의 생성 과정과 인지 과정」. 『한국어 의미학』 4, 한국어의미학회, 1999, 65-98쪽.
- 장충덕, 「한자에서 유래한 채소명 몇 고찰」. 『개신어문연구』 23, 개신어문학회, 2005, 77-97쪽.
- _____, 「맨드라미’의 어휘사」. 『새국어교육』 75,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a, 423-

- 437쪽.
- _____, 「'영경귀' 관련 어휘의 통시적 고찰」. 『새국어교육』 77,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b, 583-600쪽.
- _____, 「근대국어 식물 어휘의 조어 유형 고찰」. 『언어학연구』 13, 한국중원언어학회, 2008, 243-262쪽.
- _____, 「꽃 이름의 통시적 고찰」. 『언어학연구』 15, 한국중원언어학회, 2009, 185-201쪽.
- 조항범, 「'아가위'와 '짚레'의 어원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89, 한국언어문화회, 2014, 5-23쪽.
- 천소영, 『우리말의 문화찾기: 고유어 어원에 담긴 한국문화』. 한국문화사, 2007.
- 천정아, 「'진달래'의 방언형과 그 어원」. 『개신어문연구』 35, 개신어문학회, 2012, 69-97쪽.
- 한샘, 「상수리와 도토리의 어원」. 『한글』 9-2, 한글학회, 10쪽.
- 한성우, 『인천 토박이말 연구』. 인천학연구총서 9,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9.
- _____, 『강화 토박이말 연구』. 인천학연구총서 11,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1.
- 한진건 외, 『한조식물명칭사전』. 심양: 료녕인민출판사, 1982.
- 현평효, 「濟州島方言에서의 '나무'(木)와 '나물'(菜) 語辭에 대하여」. 『국어국문학논문집』 7·8,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부, 1969, 19-35쪽.
- 홍윤표, 「'개나리'의 어원」. 『새국어소식』 81, 국립국어원, 2005.
- _____, 「'진달래'의 어원」. 『섬표 마침표』 7-2, 국립국어원, 2006.
- 황선엽, 「날로 먹는 상추」. 『문헌과해석』 16, 문헌과해석사, 2001, 155-169쪽.
- _____, 「금단의 꽃 양귀비」. 『문헌과해석』 43, 문헌과해석사, 2008, 79-98쪽.
- _____, 「강아지풀의 어휘사」. 『한국어학』 45, 한국어학회, 2009a, 421-446쪽.
- _____, 「명아주의 어휘사」. 『국어학』 55, 국어학회, 2009b, 213-238쪽.
- _____, 「고추와 후추」. 『한국어학회 2010년 여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어학회, 2010a.
- _____, 「쓸모 있는 가죽나무」. 『새로운 국어사 연구론』, 경진, 2010b.
- 栗田英二, 「'고추'(red pepper)의 어원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18,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예술문화연구소, 1999, 253-269쪽.

2. 자연과학 등 기타 분야

- 강병화·심상인, 『우리나라 자원식물명: 남·북한의 자원식물명 비교』. 고려대학교 자연자원대학 자원식물학연구실, 1997.

- 김미옥, 『조선시대 지피식물에 관한 연구: 옛 그림 및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상경, 「초등학교 교과서에 취급된 식물의 분류 및 인지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상경·성정숙·문성기, 「초등학교 교과서에 취급된 식물명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경성대 논문집』 19-1, 경성대학교, 1998, 207-235쪽.
- 김정국, 「수목학명의 어원구명 및 외국명 조사(제2보)」. 『한국임학회지』 31-1, 한국임학회, 1976, 53-61쪽.
- 김종덕, 「葷菜類에 대한 文獻의 考察: 大蒜, 小蒜, 韭, 薤, 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_____, 「살구의 어원과 효능에 대한 문헌연구」. 『농업사연구』 7-1, 한국농업사학회, 2007, 1-28쪽.
- _____, 「고구마의 어원(語源)과 품성(品性)에 대(對)한 문헌연구(文獻研究)」. 『농업사연구』 10-1, 한국농업사학회, 2011a, 19-46쪽.
- _____, 「옥수수[玉蜀黍]의 어원(語源)과 효능(效能)에 대(對)한 문헌연구(文獻研究)」. 『농업사연구』 10-2, 한국농업사학회, 2011b, 49-83쪽.
- 김종덕·고병희, 「사과, 능금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19-1, 대한한의학회, 1998, 339-348쪽.
- _____, 「아욱(葵菜), 접시꽃(蜀葵), 닥풀(黃蜀葵), 해바라기(向日葵)에 대한 문헌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1-1, 사상체질의학회, 1999a, 221-240쪽.
- _____, 「고추(番椒, 苦椒)의 語源 연구」. 『韓國醫史學會誌』 12-2, 韓國醫史學會, 1999b, 147-167쪽.
- _____, 「해바라기(向日葵, 向日花)의 語源에 대하여」. 『한국한의학회 연구원논문집』 7-1, 한국한의학회연구원, 2001, 55-66쪽.
- 김준민 외, 『한국의 귀화식물』. 사이언스북스, 2000.
- 김한주, 「제주도 식물의 지방명과 민간약 이용에 관한 조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_____, 『제주도 약용자원식물에 관한 조사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_____, 「울산소재 고등학교 생물교과서의 식물명 이용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현진 외, 「재배식물명 표준화 연구」. 『원예과학기술지』 31-S1, 한국원예학회, 2013, 212-212쪽.
- 류면옥, 「고등학교 생물 1 교과서에 있는 식물명 조사」. 『생물교육』 26-2, 한국생물교육학회, 1998, 125-131쪽.
- 박소영, 「유통식물명과 종류를 통한 한국화훼시장의 문제점」.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박시화, 『너도밤나무는 왜 너도밤나무일까?』. 북이십일 아울북, 2010.
- 박윤점 외, 「정유 자원식물의 학명 어원 연구」. 『생명자원과학연구』 23, 원광대학교 생명자원과학연구소, 2001, 33-45쪽.
- _____, 「허브식물의 증명 어원에 관한 조사분석」.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지』 7,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 2004, 1-9쪽.
- _____, 「한국 자생 야생화의 속명 어원에 관한 연구」. 『생명자원과학연구』 27-2, 원광대학교 생명자원과학연구소, 2005a, 87-97쪽.
- _____, 「한국에 자생하는 야생화 종명의 어원」. 『생명자원과학연구』 27-2, 원광대학교 생명자원과학연구소, 2005b, 98-107쪽.
- 박인환, 「韓國 自生植物名의 類型 分析」. 『경북대농학지』 12, 경북대학교농업과학기술연구소, 1994, 1-7쪽.
- 백진주 외, 「자생식물과 도입 화훼명의 어원 및 유형 비교」.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지』 1-2,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 1998, 104-114쪽.
- 서병기, 「가시나무, 죽절초, 먼나무의 이름 유래에 대해서」. 『자생식물』 66, 한국자생식물보존회, 2008, 8-10쪽.
- 서석조, 「中學校 庭園植物의 實態調査 및 中學校 教科書의 植物名 調査」.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서석조·성민웅, 「중학교(中學校)정원식물(庭園植物)의 실태 및 중학교(中學校)교과서의 식물명(植物名)조사」. 『생물교육』 10-1, 한국생물교육학회, 1982, 18-30쪽.
- 서정남·김종윤·박천호, 「원예학용어 및 작물명집과 표준국어대사전의 화훼식물 일반명 간 차이」. 『화훼연구』 13-3, 한국화훼산업육성협회, 2005, 232-238쪽.
- 신숙자, 「初等學生의 花卉植物 認知度와 購買 行態」.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신연희 외, 「충청북도 남부지역의 민속식물」. 『한국자원식물학회지』 26-1, 한국자원식물학회, 2013, 90-102쪽.
- 안성만, 「聖書에 나타난 植物의 出現率과 形態 및 生態·意味의 特性에 관한 研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안영희·박소영·방식·강귀옥, 「국내 화훼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요 화훼류의 식물명에 관한 연구」. 『녹지환경학회지』 3-2,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 2007, 17-33쪽.
- 윤희섭, 「식물명 제시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식물 인식에 미친 효과」.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기의·황중락·윤영환, 「조경식물명의 유래에 관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9-1, 한국정원학회, 1991, 5-29쪽.
- 이승인, 『본초학 교재에 수록된 약용식물의 種名의 어원 연구』. 동신대학교 박사학

- 위논문, 2012.
- 이우철, 「南北韓의 植物記才用語 및 植物名의 比較」. 『식물 분류학회지』 22-1, 한국식물분류학회, 1992, 69-89쪽.
- _____, 『한국식물명고』. 아카데미서적, 1996.
- _____, 『한국 식물명의 유래』. 일조각, 2005.
- 이일병, 『園藝植物의 學名과 韓國名 語源에 關한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이일병 외, 「관엽식물의 속명 유래에 관한 조사」. 『화훼연구』 11-1, 한국화훼산업육성협회, 2003, 5-14쪽.
- 이정애,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식물명」. 『Viola』 2,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생물연구회, 1958, 15-18쪽.
- 이주희 외, 『(내 이름은)왜?: 우리 동식물 이름에 담긴 뜻과 어휘 변천사』. 자연과생태, 2011.
- 임병윤, 「우리 꽃 이름 유래와 어원의 교육적 활용 방안」.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임영득·윤희섭, 「식물명 제시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이 식물 인식에 미치는 효과」. 『생물교육』 28-4, 한국생물교육학회, 2000, 356-362쪽.
- 장권렬, 「有用植物의 學名語源에 關한 統計的 考察」. 『논문집』 13, 경상대학교, 1974, 95-104쪽.
- 장진성·김휘, 「韓國樹木의 學名에 對한 再考」. 『韓國林學會誌』 92-1, 한국임학회, 2003, 71-86쪽.
- 정경란, 「호초(胡椒)의 두 가지 의미, 고추와 후추」. 『한국콘텐츠학회지』 12-2, 한국콘텐츠학회, 2014, 31-43쪽.
- 정경란·장대자·양혜정·권대영, 「고추는 과연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는가?」. 『식품문화 핫맛핫얼』 제1권 3호, 한국식품연구원, 2008a, 5-11쪽.
- _____,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는 왜개자는 과연 한국 고추인가?」. 『식품문화 핫맛핫얼』 제1권 4호, 한국식품연구원, 2008b, 6-16쪽.
- _____, 「고추의 우리나라 전래에 대한 재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고추가 임진왜란 훨씬 이전에 '고초'로 있었다」. 『식품문화 핫맛핫얼』 제2권 1호, 한국식품연구원, 2009a, 5-31쪽.
- _____, 「고추의 어원은 '왜개자', '남만초', '번초', 그리고 '苦椒'도 아닌 우리말 '고초'이다」. 『식품문화 핫맛핫얼』 제2권 2호, 한국식품연구원, 2009b, 5-27쪽.
- 정규영 외, 「경상북도 내륙지역의 민속식물 I」. 『한국자원식물학회지』 23-5, 한국자원식물학회, 2010, 465-479쪽.
- _____, 「강원도 남부지역의 민속식물」. 『한국자원식물학회지』 24-4, 한국자원식

- 물학회, 2011, 379-394쪽.
- 정순해, 「시중에 유통되는 식용식물의 분류」.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영호, 『國際植物命名規約精解』. 아카데미서적, 1986.
- 정의중, 「韓國産藥用植物의 學名語源에 關한 統計的 考察」.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정하나, 「實科 學習과 關聯된 植物認識度 및 植物分類體系에 關한 調査」.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정혜란·최경·문현식, 「울릉도지역의 민속식물」. 『농업생명과학연구』 46-5,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12, 25-36쪽.
- 주정석, 『『本草學』에 수록된 약용식물의 屬名에 關한 어원 연구』.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천민필,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식물 및 학교식재 식물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최병기, 「初·中學校 自然·科學 教科書에 取扱된 植物의 分類 및 比較 分析」.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최상범, 「木本 造景植物의 學名 語源에 關한 研究」. 『농림과학논문집』 12, 동국대학교 농림과학연구소, 1988, 157-188쪽.
- _____, 「造景植物의 學名에서 屬名의 語源 研究」. 『농림과학논문집』 18, 동국대학교 농림과학연구소, 1994, 169-199쪽.
- 한정주, 「중·고등학교 생물교과서에 기록된 식물과 교정의 식물에 대한 분류 및 비교분석」.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한태호, 『원예식물 이름의 어원과 학명 유래집』. 전남대학교출판부, 2006.
- 허복구 외, 『재미있는 우리 꽃 이름의 유래를 찾아서』. 중앙생활사, 2002a.
- _____, 「허브식물의 속명 어원에 관한 조사분석」. 『화훼연구』 10-2, 한국화훼연구회, 2002b, 53-62쪽.
- _____, 『(재미있는) 우리 나무 이름의 유래를 찾아서』. 중앙생활사, 2004a.
- _____, 「한국 화훼명이 외래어에서 유래된 초본화훼의 학명 어원」. 『화훼연구』 12-1, 한국화훼산업육성협회, 2004b, 109-116쪽.
- _____, 『(궁금할 때 바로 찾는)우리 나무 도감 250: 우리 나무 이름·유래편』. 중앙생활사, 2008.
- 현대해양출판국사전편찬위원회, 『(韓·英·日)水産動植物名辭典』. 現代海洋社, 1988.
- 황인현, 「초등교사의 수목명에 대한 인지도 조사」.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국 문 요 약

이 글은 식물명에 관한 여러 분야의 연구 현황을 정리하고 식물명의 특성과 식물명 연구 시 유의할 점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식물명이란 말을 생물학 쪽에서는 ‘식물+명’의 개념으로 사용해 왔고 국어학 쪽에서는 ‘식물+물명’의 개념으로 사용해왔다. 이 글에서는 식물명을 ‘식물+물명’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식물명에 대해 연구해온 분야는 국어학·국어교육학·생물학(식물학)·생물교육학·원예학·임학·농학·한의학 등 매우 다양하다. 현대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에서는 식물명의 조어방식이나 의미, 학명이나 속명 등의 유래에 대해 주로 연구하였다. 역사 쪽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어원이나 명칭의 변천, 해당 식물에 대한 문헌 고찰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이름을 연결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식물명은 일반 명사들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식물명은 공시적인 변이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통시적으로도 극심한 변천을 보이는 일이 많다.

식물명을 연구할 때에는 해당 식물의 생태는 물론, 학명이나 외국어 명칭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언형과 통시적인 변화형을 모두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헌 자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식물명의 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민간 어원이 널리 퍼져 있는데 가능한 한 이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어원을 밝혀야 한다. 현재 국가표준식물목록 사업이 완료되어 웹에서 식물에 대한 여러 명칭이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충실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14. 9. 24.

심사일 2014. 11. 10.

게재 확정일 2014. 11. 26.

주제어(keyword) 식물명(plant names), 어원(etymology), 방언형(dialect forms), 통시적 변화(diachronic changes), 학명(scientific names)

Abstracts

Current Status of Research and Tasks on the Names of Plant **Hwang, Seon-yeop**

This paper is summarizing research status for plant names made in various fields,

Also, this paper discusses Characteristics of plant names, note that when we study plant names, and challenges of the future in research of plant names. The term plant names has been used in the sense of 'plant+names' in biology(botany), has been used in the sense of 'plant+names of objects' in Korean linguistics. In this paper, it is used in the sense of 'plant+names of objects' the term.

Plant names have been studied in various fields, such as Korean linguistics, Korean language education, biology(botany), biology Education, horticulture, forestry, agriculture, oriental medicine. The researches focusing on contemporary mainly study word formation of plant names, means of Plant names, and the origin of scientific name or generic name. The researches focusing on history mainly study the etymology of plant names, change of plant names, survey of the literature about the plant.

Plant names are different with the common noun in the respect of difficulty to link the name of the plant and that plant. Also, Plant names have a very wide range of synchronic variations. And the diachronic change of plant names is very badly.

In research of plant names,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ecology of that plant, scientific names and foreign language names, etc. Research is also needed on the dialect forms and diachronic change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various literature for this purpose. For the etymology of plant names, numerous folk etymology is widespread and it can reveal the origin through an objective and scientific approach. Korean Plant Names Index become available from the web. But it should be supplemented by interdisciplinary research.